

한미약품그룹 내홍 심화… 계열사 대표들 공동성명 발표

계열사 핵심인사들

“상속세 문제에 외부세력 개입
대주주 가족 간 단합 해쳐지고
임직원 독립경영 선언에 혼란”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과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중윤·중훈 ‘형제’ 측의 경영권 갈등이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및 핵심 계열사 대표들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미약품을 제외한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대표들은 한미약품그룹 내 인트라넷을 통해 한미약품 ‘독립 경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성명서를 공개했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사장. /한미약품

이 성명서에서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우기석 온라인팜 대표이사, 이동환 제이브이엠 대표이사,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헬스케어사업부문 부사장 등 한미

약품그룹 핵심 인사들은 한미약품이 촉발한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분란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주주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문제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대주주 가족 간의 단합이 해쳐지고, 이로 인해 한미그룹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 기여가 없었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 문외한인 단순 주주가 본인의 주가 차익을 위해 잘못된 혼수를 두고 있다”며 “그룹 내의 일부 임직원들까지 실체가 불분명한 독립경영을 외부에 선언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현재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독자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그동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위임해

왔던 인사 부문 업무를 독립시키고, 법무팀 등 여러 부서를 신설하는 등 ‘독자 경영’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대해 임중윤 한미약품 사내이사는 공개적으로 반발해 왔고 이후 지난 9월에는 이사회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해당 이사회에서 임중윤 한미약품 사내이사의 단독 대표이사 선임 안건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교체 및 동사 선임 안건 등은 모두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 대해 한미약품은 유감을 표하며 ‘독자 경영’에 더욱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독단적인 오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계열사 대표님들의 갈등과 고민, 고뇌도 함께 읽을 수 있었기에 한미약품이 추구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는 더욱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박준석 부사장(한미사이언스)과 장영길 대표(한미정밀화학)는 다가오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진 후보로 지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이해당사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외부세력 개입 중단을 선언한 만큼, 한미사이언스에 특정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방식, 또는 제3의 기업에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오늘 이 시간부로 당장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오는 12월 19일 서울 교동회관에서 임시주총을 연다. 안건은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현대免, 새 BI 공개… “브랜드 경쟁력 강화”

혜택 ‘더하기’, 부담 ‘빼기’ 조합
온라인서 초성퀴즈 이벤트 진행



답과 불편함은 떨어진다(-)는 뜻을 디자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BI를 활용한 초성퀴즈 이벤트도 연말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인터넷면세점에서 진행되는 초성퀴즈에 참여하면 총 2만원 상당의 온·오프라인 쇼핑혜택을 증정한다.

현대면세점은 BI 변경과 함께 신규 브랜드 유치를 통해 사업 경쟁력 제고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인천공항점에서는 지난달 생로랑과 발렌시아가 부티크가 각각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문을 열었다. 이로써 인천공항점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루이비통, 샤넬, 구찌에 더해 총 26개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해 국내 면세업계 최고 수준의 명품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무역센터점은 지난 7월 펜디에 이어 지난 10월 생로랑 매장을 새롭게 오픈했으며, 이달 중 발렌시아가 매장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또한, 동대문점에는 올해 마뎡김, 마리떼프랑소와저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신규 K패션 브랜드가 대거 입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신세계免, 인천공항에 ‘샤넬 윈터 테일’ 조성

2터미널에 아태 면세 최대규모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이 샤넬과 함께 윈터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신세계면세점은 샤넬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면세 최대 규모의 ‘샤넬 윈터 테일’ 포디움을 인천공항 2터미널에 선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샤넬과의 두 번째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샤넬 윈터 테일’은 약 142m² (43평)으로 더 넓어진 공간에서 샤넬 하우스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동화 속 세계를 재현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12월 26일까지 열리는 ‘샤넬 윈터 테일’에서는 연말 해외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다양한 뷰티 제품은 물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향수를 포함한 ‘익스클루시브 기프트 세트’, 피부케어에 위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 오로라 빛과 눈꽃에서 영감을 받은 ‘메이크업 리미티드 에디션’ 등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인 제품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에 아시아 최대 규모 ‘샤넬 윈터 테일’ 포디움 오픈. /신세계면세점

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특정 매장에서만 한정 판매되는 프리미엄 향수 ‘레 젝스클루시프 드 샤넬’이다.

레 젝스클루시프 드 샤넬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향수 제품으로, 앰버 향의 꼬로망델, 화이트 머스크 향의 1957, 앰버 레드 향의 르 리옹 등을 현장에서 시향해볼 수 있다.

/최빛나 기자

컬리 10일까지 ‘컬리세일’

컬리는 총 2000여개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가을맞이 ‘컬리세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유통업계의 11월 온·오프라인 대규모 할인 행사에 동참하고자 할인 적용 상품도 대폭 늘렸다.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감자, 고구마, 사과 등 가을 제철 과일과 채소는 물론 칼국수, 전골, 밀푼유나베 등 인기 밀키트까지 한자리에 모았다. 필수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단골 상품들도 특가 판매한다.

베스트셀러를 최대 혜택으로 누릴 수 있는 컬리픽 특가 코너에서는 각 카테고리별로 컬리가 꼽은 대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볶음’류에서는 압구정주꾸미 볶음을, ‘냉동간식’류에서는 99 핫도그를, ‘튀김’류에서는 컬리스 유린기를 추천한다. 쟁이기 찬소 코너 상품들은 담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마마리 소고기 무국, 육이네 보리새우아육국, 오모가리 돼지 감치찌개 등 인기 국탕찌개 12종을 균일가 5500원에 골라 담을 수 있다. /최빛나 기자



몽골 정부 관계자와 현지 10여명의 기업인들이 1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SPC그룹 패션5를 방문해 베이커리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해외 진출 성공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SPC그룹

SPC, K-베이커리 노하우 몽골에 전파

몽골 정부 관계자 등 10여명 방문
패션5 방문, 베이커리 기술 체험

최근 몽골에서 K-푸드의 인기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몽골 정부 및 현지 기업인들이 K-베이커리의 우수성과 해외진출 전략을 배우기 위해 SPC그룹을 찾았다.

SPC그룹은 지난 1일 몽골 정부 관계자와 현지 10여명의 기업인들이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패션5를 방문해 베이커리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해외 진출 성공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4일 밝혔다. SPC그룹을 방문한 기업인들은 몽골 기업가협의회 회원사 소속이다.

SPC그룹은 이 자리에서 휴면반죽을

통한 균일한 품질관리, 프랜차이즈 경영 노하우, 국가 별로 특화된 현지화 전략 등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곳곳에는 한국의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프랜차이즈가 대거 진출하면서 K-푸드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울란바토르와 경기도 동탄신도시를 합친 ‘몽탄신도시’라는 신조어도 생겼을 정도다. SPC그룹이 몽골 기업인들과 협력하면 그동안 구축된 중국사업 인프라와 연계돼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푸드빌, 현대카드 ‘M70 프로모션’

M포인트 최대 70% 사용 이벤트

CJ푸드빌이 푸레쥬르, 빙스 등 주요 브랜드에서 현대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M70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은 지난해 현대카드 최초로 시행한 ‘M70 프로모션’에 단독 파트너로 참여하여 제휴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왔다.

해당 프로모션은 현대카드로 결제 시 구매 금액의 최대 70%까지 M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브랜드 이용이 가능한 장점과 결제 편리성 등으로 이어진 소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CJ푸드빌은 연말을 맞아 자사 베이커리, 외식 브랜드를 풍성한 혜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현대카드와 최대 70% M포인트 사용 이벤트를 추가 마련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푸레쥬르, 빙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등 CJ푸드빌의 대표 브랜드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